

1년 만에 미니앨범 ‘스퀘어 업’으로 돌아온 블랙핑크



1년의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블랙핑크. 이들은 공백에 대한 갈증을 풀어내듯 각종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시크하고 당당하게 ‘뚜두뚜두’… 고정관념을 깨자”

〈총소리 or 주문을 외우는 소리〉

걸그룹 블랙핑크(지수·제니·로제·리사)가 컴백과 동시에 기록 잔치를 벌이고 있다. 15일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을 발표한 블랙핑크는 타이틀곡 ‘뚜두뚜두’를 18일까지 사흘째 국내 8개 음악차트 1위에 올려놓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이용자수 100만 돌파’ 기록도 세웠다.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1000만 조회수(유튜브 기준)부터 5000만 조회수까지 1000만 단위의 ‘걸그룹 최단 기간’ 기록을 모두 잡아 치렀다. 해외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4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영향력도 과시했다. ‘포에버 영’ ‘리얼리’ ‘시유 레이더’ 등 미니앨범에 실린 다른 곡들도 10위권이다. 앨범은 YG엔터테인먼트의 히트메이커 테디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블랙핑크의 이 같은 성과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 새 앨범 ‘스퀘어 업’은 싱글만 계속 내놓다가 데뷔 2년 만에 발표한 첫 미니앨범이고, 아이돌 가수예전 ‘위험수위’인 1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음악적 변신을 단행하고도 이뤄낸 결과라 더욱 값지다.

‘뚜두뚜두’는 강렬한 트랩 비트 위에 동양적인 퍼커션 리듬과 휘슬 사운드가 어우러진 힙합곡이다. 노랫말은 시크하고 당당한 여성

의 표상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걸크러시 매력이다. 앞선 히트곡 ‘불장난’ ‘마지막처럼’ 등이 소속사 선배인 투에니윌 음악을 연상시켜 ‘이류’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블랙핑크는 이번 음반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게 됐다. 그것도 여성그룹이 사랑받기 쉽지 않은 강렬한 힙합으로.

새 앨범이 발표된 15일 서울 청담동에서 만난 블랙핑크는 세간의 그 어떤 우려에도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1년은 그냥 ‘공백’이 아니라, 많은 것을 준비한 시간”이라는 멤버들의 말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은 ‘기록잔치’로 증명되고 있다.

분기별로 새 음반을 내며 ‘생존게임’을 벌여야 하는 아이돌이지만, 블랙핑크에게 지난 1년은 매우 유의미한 공백이었다. 1월 공개된 리얼리티 웹 예능 ‘블핑하우스’를 통해 신비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멤버들의 리얼한 일상생활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다. 이 프로그램 출연은 멤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계기가 됐다.

“리얼리티하면서 여유를 갖게 됐고, 집밥도 먹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런 마음으로 차분히 준비한 앨범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충분한 시간을 가

타이틀곡 ‘뚜두뚜두’ 사흘째 차트 1위 해외 아이튠즈 앨범 차트 44개국 1위 뮤비 5000만뷰, 걸그룹 최단기간 경신 “힙합 분위기 장착…성숙미 기대하세요 블랙핑크만의 색깔 담아 새로운 도전중”



인기 급상승 동영상 #1 BLACKPINK · ‘뚜두뚜두 (DDU-DU DDU-DU)’ M/V 조회수 21,905,510회
음악차트 1위, 최단 기간 유튜브 1000만 조회수 등 기록 전지를 벌이고 있는 타이틀곡 ‘뚜두뚜두’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 사진출처 | 뮤직비디오 캡처

지며 많은 곡을 녹음했고,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작품이 이렇게 나왔다.”(제니) 공백기 동안 블랙핑크는 일본 활동에 나섰고, 국내 대학축제 무대에 올랐다. 이들 역시 블랙핑크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다.

“대학축제, 일본 공연 등을 경험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됐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지수)

피와 살이 된 지난 시간들을 통해 블랙핑크는 그렇게 뜨거운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일의 행복을 느끼게 됐으며, 그 결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제니는 “‘뚜두뚜두’는 총소리이기도 하지만, ‘맞서보자’는 앨범 제목(스퀘어 업)처럼 주문을 외우는 의미”라며 이번 앨범이 자신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맞서는 작품임을 강조했다.

지수는 “전작까지 여성스러운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라면, 이번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위해 힙합 분위기를 살렸다. 랩도 강렬하다. 우리의 새로운 모습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핑크는 8월이면 데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은 성장의 날들이었지만, 가장

큰 수확은 “(성공에 대한)부담감은 떨치고 즐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부담을 많이 가지면 무대에서 표가 나기 마련이다. 신곡을 통해 새로운 걸 계속 보여주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건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다시 다른 걸 시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다. 데뷔하고 반년쯤 됐을 때는 부담도 크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다. 1년간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번엔 즐기면서 해보자’고 멤버들과 이야기 나눴다. 차트 순위가 높으면 좋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도를 두고 ‘이것도 블랙핑크만의 색깔로 해내네’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만족한다.”

블랙핑크는 자신감과 여유로 빛어낸 이번 앨범을 계기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결국 ‘스퀘어 업’은 블랙핑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예측해보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블랙핑크는 하나의 색깔로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색깔을 정해놓고 활동한다기보다 그때그때 색깔을 정해서 새로운 걸 보여주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블랙핑크만의 매력 아닐까. 그래야 활동할 때 더 집중되고, (그 색깔에)더 스며들 것 같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연예뉴스 HOT 5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윤아·백현 등 행안부 안전홍보대사에

박시연, ‘위드 러브’ 자선바자회 연다

준케이, 신교대서 사단장 표창 받아

AOA, 30일 ‘투 엘비스’ 팬미팅 개최

트와이스, 내달 9일 미니앨범 컴백



소녀시대 윤아와 엑소의 첸·백현·시우민이 행정안전부 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에 참석해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안전문화운동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위촉식 후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안전홍보대사를 맡은 윤아는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에서 마련했다.



연기자 박시연이 7번째 자선바자회를 연다. 18일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시연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신사동 엠주 쇼룸에서 자선바자회 ‘위드 러브’를 개최한다. 박시연은 2011년부터 매년 자선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으로 불치병 어린이와 미혼모를 돕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홍보대사 ‘홀트패밀리’로 위촉됐다. 이번 자선바자회에서는 오연수, 김선아, 예지원, 김성수, 오지호, 차예련 등 여러 스타들이 기부한 소품들을 볼 수 있다. 박시연은 자신이 만든 캔들을 올래도 내놓는다.



2PM 준케이 군 복무 중인 2PM의 준케이(김민준)가 최근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사단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준케이는 훈련소 입소 후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준케이이는 2PM 공식 팬사이트를 통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두 번째 체력측정에선 달리기 3위, 윗몸일으키기 111개를 했다. 감사하게도 수료식에서 사단장님 표창을 받게 됐다. 98년생 훈련병들 사이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팬들이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군 복무 하겠다”고 썼다.



AOA는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근 발표한 5번째 미니앨범 ‘빙글빙글’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행사여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오랜만에 팬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갖는 만큼 더욱 발전된 음악적 기량과 다채로운 이펙트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메인보컬 조아의 탈퇴로 6인 체제로 재구성된 AOA는 긴 공백과 멤버 이탈에도 불구하고 견제함을 과시했다.



트와이스가 7월9일 컴백을 확정했다. 4월 다섯 번째 미니앨범 ‘왓 이즈 러브?’ 이후 3개월 만이다. 컴백곡은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로 트와이스는 이 곡을 통해 시원하고 청량한 매력을 팬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각종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별빛이 반짝이는 여름밤을 배경으로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라 새겨진 문구, 녹음이 짙은 푸른 숲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갖 만들어진 듯한 천막, 여행 캐리어 등이 등장해 한여름 밤 속 휴가지의 느낌을 물씬 풍긴다.